

# SCHOENFIELD & SMETANA

피아노 김태형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

쇤필드 |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Schoenfield |  
4 Parables for Piano and Orchestra

스메타나 | '나의 조국' 중  
발췌 연주  
Smetana |  
Selections from 'Má Vlast'

함신의  
오케스트라

02.22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곽진오  
김희련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감사**  
김일규

##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 마스터즈 Circle

노루그룹

EG

풍산

### 말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K2Webtech

###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골프존

GFS

### 브루크너 Circle

윤정웅

김석수

### 슈베르트 Circle

신승일

면사랑

영앤진세무법인

김일규

함성익, 최영애

### 베토벤 Circle

에스앤아이

엔피코리아

한수향

### 쇼팽 Circle

다진

이경혜

송백규

문형주

안정근

### 모차르트 Circle

김원호

내자인

서석호

신영만

유애리

이근혁

이성재

전홍구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 하이든 Circle

고윤영

계양 수치과

권영성

권용관

김기태

김성렬

김영기

김은주

김종혁

김종훈

박진형

백방미

봉옥 법률사무소

유재천

이미영

이숙희

이윤희

이응돈

장윤정

조백일

조수린

최상욱

코스모엠

한문성



##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 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사회공헌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 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한다.

###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 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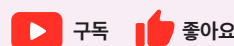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Symphony S.O.N.G**  
 T.02-549-0046 F.02-549-0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B1  
<http://symphonysong.com>



**심포니 송 YOUTUBE**  
 검색: 심포니송



지휘자  
함신익의

열정과  
사명



##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

함신익의 여정은 평탄한 길을 걷는 여행가보다는 끊임없이 험준경에 도전하는 등산가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와 가깝다. 소년 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삼양동 달동네의 개척교회에서 풍금으로 음악감성을 깨우치고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대한 꿈을 꾸었다.

초·중·고 학생시절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며 혼신을 다해 빠르게 달리는 축구에 흥미를 가졌다. 지금은 매일 같이 산에 오르며,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음악과 축구와 자연은 자연인 함신익의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주제이자 요소가 되었으며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으로 연결되어 대부분의 연주자들과는 다른 특이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 소금 같은, 보석 같은 지휘 능력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트만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 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달린다. —————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을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자크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 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 기적의 지속가능한 성장

2020년 시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낸 바 있다.

2014년 창단된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달린다.





피아니스트 김태형

# 섬세함과 화려함, 뛰어난 밸런스의 연주자

피아니스트 김태형 Tae-Hyung Kim

- 포르투 국제피아노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롱-티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그랑프리 아카데미,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콩쿠르 우승
-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마린 알습 등 명 지휘자와 협연 및 정경화, 노부코 이마이, 크리스토프 포펜, 바딤 레핀 등 세계적인 명 연주자들과 연주
-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충모 사사)를 거쳐 독일 뮌헨국립음대에서 엘리스 비르살라제 사사, 이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수학
- 뮌헨국립음대에서 헬무트 도이치의 사사로 성악가곡반주(Liedgestaltung)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크리스토프 포펜과 프리드만 베르거 문하에서 실내악 과정 역시 수학
- 현재 경희대 음대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을 양성 중이며,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시리즈 진행자로 활약 중

## 2015년 심포니 송 창단 1주년부터 함께한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심포니 송 첫인상

심포니 송은 리허설에 갈 때마다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고 새로운 시도를 마다하지 않는 오케스트라인 것 같습니다. 함신익 선생님께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 주시고 리허설 때도 함께 리허설 녹음도 들어보고 같이 확인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점이기도 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음악적 방향 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구요.

##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이번 협연은 선필드 (P. Schoenfield)의 네 개의 우화 (Parable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함신익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셨는데, 선필드는 워낙 천재적이면서 재밌는 요소들이 가득한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에 제안을 받자마자 욕심이 났습니다. 이런 멋진 곡이 연주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주 볼 수 없는데 처음 듣는 분들께 무척 흥미진진한 곡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 독일과 러시아 유학생활에서 얻은 음악적 영감

두 나라의 현지사람들이 예술,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유학이란, 머무르는 동안 그 나라 사람이 되어 현지 언어를 쓰고, 보고 느끼는 것을 같이 공감하며 결국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시 위대한 작곡가들이 무엇을 느꼈을지 공감하며 그들의 작품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연주 계획

올해 크고 작은 장소에서, 서울 외 다른 도시들에서 꾸준히 다양한 레퍼토리로 연주할 수 있어 기대되는데요. 4월 13일 아트센터인천, 5월 23일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아티스트 나우 시리즈, 대전예술의전당의 기획시리즈 '심야극장'에서 6,7,8월 호스트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성남아트센터에서 마티네 시리즈 진행자 및 연주로 계속해서 청중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 Paul Schoenfield

(1947~)

폴 쇼필드



## Four Parables for Piano and Orchestra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김태형, 피아노

Tae-Hyung Kim, Piano

- I. Rambling Till the Butcher Cuts Us Down ..... 도살자가 우리를 베어낼 때까지 어슬렁 거리기
- II. Senility's Ride ..... 노망(老妄) 여행
- III. Elegy ..... 슬픈 노래
- IV. Dog Heaven ..... 개들의 천국



# Bedřich Smetana

(1824~1884)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 Selections from 'Má Vlast'

'나의 조국' 중 발췌 연주

- I. Vyšehrad ..... 비셰흐라드
- II. Vltava ..... 블타바
- V. Tábor ..... 타보르
- VI. Blaník ..... 블라니크

Schoenfield, *Four Parables for Piano & Orchestra*

# 쾰필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폴 쾰필드(Paul Schoenfield, 1947~)는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출신의 유대계 미국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며 수학, 히브리어 및 탈무드 교사이다. 명석한 두뇌 덕분에 온라인 카지노에서 성공적으로 돈을 벌기도 하였는데 캡틴 쿡 카지노(Captain Cook Casino, 프랑스계 온라인 게임 회사)의 플레이어로 명성을 날리기도 하였다. 그는 그의 혁신적인 작품과 뛰어난 피아노 연주로 클래식 음악계에 독창성을 선사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젊은 시절에는 오하이오 주 톨레도(Toledo, Ohio)와 이스라엘 키부츠(Kibbutz: 이스라엘의 집단 농업 공동체 마을)를 오가며 수학과 탈무드를 가르쳤고 말보로 음악 그룹(Music From Marlboro: 1951년부터 미국 버몬트 주에서 시작된 저명한 음악 축제) 피아니스트로서 미국과 유럽, 남미에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90년대에는 이스라엘의 미그달 헤멕(Migdal Ha'emk)에 주로 거주하며 작곡과 연주에 전념하였고 훗날 미국으로 돌아온 후 미시간 대학교(2021년 은퇴)에서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쾰필드는 다양한 문화의 음악적 요소(클래식, 클레즈머(Klezmer: 동유럽 유대 음악과 민요), 하시딕(Hasidic: 미국 내에 정착, 발전된 유대음악), 토속 민요, 재즈, 및 대중음악)를 하나의 테두리 안에 융합하여 성공적으로 구사했다고 극찬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거슈윈(George Gershwin, 1898~1937)과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 및 아이브스(Charles Edward Ives, 1874~1954)의 전통을 직접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모차르트, 브람스, 바르톡, 쇼스타코비치의 클래식 음악 재료를 보드빌(Vaudeville: 17세기 프랑스 희극에서 기인한 버라이어티 쇼)과 클레즈머 스타일로 녹여내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전통적 클래식 작곡 기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이한 음악 장르를 절충장치 없이 직접적으로 혼용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실 이는 그가 동시대 예술의 진보를 위한 특별한 의도라 볼 수 없는데 그는 혁신적 작곡가로서의 예술적 사명보다는 대중가로서 음악을 통한 유희와 열정 그 자체를 만끽하려는데 작곡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쾰필드는 한 인터뷰에서 "저는 저 자신을 전혀 예술적이거나 심오한 음악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연주나 작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작품들이 간혹 클래식 장르로서 콘서트홀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제 음악을 연주하기에 충분한 기술, 시간, 또는 열망을 가지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들은 주어진 악보를 따르기보다 본인 스스로의 즉흥 연주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대중음악을 지향하며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작곡법을 따른 그는 기존 클래식 음악계의 권위나 간섭(재정적 또는 아카데미한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그가 가진 다양한 음악적 어휘를 제약 없이 구사해낼 수 있었다. 비록 그의 작품들이 혹평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의 지나친 겸손과 대중음악가임을 자처하는 연사로 그의 작품이 과소평가 받을 수 있었지만 쾰필드의 음악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으며 점차 두터운 팬 층을 형성하고 있다. 줄리아드 음악원 명예 교수 조엘 사흐스(Joel Sachs, 1939~)는 "그는 작품에서 풍부함과 진지함, 친근함과 독창성, 가벼움과 깊이를 모두 겸비한, 너무나 보기 드문 작곡가들 중에 하나이다. 그의 작품은 음악적 경험의 전 범위 즉 미국과 외국의 대중적인 스타일, 국내 전통과 민속 전통, 그리고 종종 능청스러운 반전으로 취급되는 정형화된 "평범한" 전통 클래식 작곡 기법 등이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는 듯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의 동물적인 작곡 본능과 때때로 열광에 가까운 소리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극도로 복잡하고 엄격함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라고 평가한다.

## Paul Schoenfield,

# Four Parables for Piano & Orchestra

Paul Schoenfield, alternatively spelled as Paul Schoenfeld or Pinchas Schoenfeld, was born in 1947 in Detroit, Michigan, and has established himself as a distinguished classical composer. Renowned for his adept fusion of popular, folk, and classical music genres, Schoenfield's musical journey has taken him across diverse landscapes, including a stint on an Israeli kibbutz. Beyond his musical pursuits, he has delved into the realms of mathematics and Hebrew scholarship, shaping a unique artistic perspective that draws inspiration from jazz, pop, folk, and various vernacular traditions. While concentrating on composition in recent times, Schoenfield previously showcased his talents as an active concert pianist, achieving recognition for recording the complete violin/piano works of Bartok alongside Sergiu Luca.

Bartok and Gershwin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Schoenfield's work, evident in his elegant approach to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crossover" music. Interestingly, his incorporation of vernacular quotations, reminiscent of composers like William Bolcom, stands





신펠드의 솔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는 1983년 작곡가 주변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작곡된 피아노 협주곡이다. 전체적으로 유연한 짜임새 가운데 자유로운 즉흥 연상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 가는데 마치 1980년대 미국 카툰 영화를 보는 듯 전개가 다채로움과 드라마틱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즈와 유대교 음악 및 정통 클래식의 어휘가 혼재되어 있어 마치 전형적인 크로스오버 작품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도되었기 보다는 다양한 음악적 어휘를 직관적으로 혼용한 유연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1악장 | Rambling Till the Butcher Cuts Us Down**

**“도살자가 우리를 배어낼 때까지 어슬렁거리기”**

첫 곡은 1983년 미시간 주에서 사회적 이슈로 뜨거웠던 노년의 사지마비가 된 재소자(在所者)를 인권 차원에서 가석방하게 된 사건에 관한 음악적 묘사이다. 도살자는 범죄자를 뜻하고 어슬렁거림은 딱히 마땅한 반대 논리도 없이 불필요한 걱정으로 논쟁을 일삼은 당시 대중들의 모습을 지칭한다.



[1악장 저음현과 클라리넷에 의한 서주 주제]

음산한 기운으로 걱정이 차오르는 가운데 들려오는 저음현의 어슬렁거리는 움직임과 클라리넷의 기괴함이 인상적이다. 음계가 클레즈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유대교 전통 민요가 브루스 재즈 음악 위에 얹어져 있는 듯 신비롭다. 찬반 논쟁을 제 3자의 시점에서 비꼬고 있는데 카툰 영화 ‘툼과 제리’에서와 같이 쫓고 쫓기는 유머로 승화시켜 놓았다.



[1악장 솔로피아노에 의한 주제 동기]

솔로 피아니스트가 재즈밴드 오케스트라와 잼(Jam, 특별한 음악적 방향성 없이 즉흥으로 합주) 세션 연주를 하는데 이 경쾌하며 흥겨운 제스처가 우스꽝스러운 논쟁을 일종의 블랙 코미디로 시니컬하게 잘 녹여내고 있다. 솔로 피아노에 의한 주제 동기는 이후 4악장에서 변주되어 활용된다. 존 윌리엄스가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5(제국의 역습)을 위해 쓴 음악의 한 장면이 중반부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 놀랍기도 하다. 서주 후 첫 부분이 변주 재현된 후 큰 울림으로 화려하게 마친다.

**2악장 | Senility's Ride**

**“노망(老妄) 여행”**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로 버몬트 주에 머무르는 기간에 만나게 된 한 치매 노인의 이야기를 담은 악장이다. 자신의 기억이 왜곡, 소실되어 가는 것을 한탄하며 젊은 날을 회상하는 노인의 심정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려내는데 1940년대 뉴욕 도시 속의 젊은 시절 노인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일품이다. A-B-A' 세도막 형식으로 워킹 베이스(Walking Bass)에서 시작된 재즈 풍의 솔로 피아노가 뉴욕 시내를 회상하는 노인의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out for its distinctive, well-crafted quality.

“Four Parables,” a 1983 piano concerto inspired by real-life situations, approached with an entertainingly eclectic blend of musical styles, including invigorating jazz elements. This concerto digs into serious themes through a lens of dark, even ghoulish humor, drawing inspiration from personal acquaintances and social issues.

The first movement, titled “Rambling Till the Butcher Cuts

Us Down,” explores the contentious release of an aged quadriplegic murderer, presented with sardonic up-tempo burlesque undertones.

The second movement, “Senility’s Ride,” portrays a Vermont neighbor of Schoenfield grappling with memory issues while reminiscing about youthful dancing days. The third movement,

“Elegy,” pays homage to a young friend who, influenced by “religious fanatics,” tragically refused medical treatment and met an untimely end. The finale narrates a story of a mother punishing her children by parting with the family dog, yet “Dog Heaven” concludes the piece on a lighter note, envisioning a whimsical canine afterlife complete with ample bones and fire hydrants for all.

As in many of Schoenfield’s compositions, “Four Parables” displays his masterful blending of jazz elements with traditional classical forms, employing uninhibited scoring techniques. While the concerto is undoubtedly entertaining and effective, some may perceive it as a showcase of brilliance rather than a profound exploration of substance.



[2악장 절음 날을 그리워하는 노인의 주제]

이후 템포가 빨라지고 젊고 활기찬 걸음걸이가 재미있다가 현 파트에 의해 중반부 주제가 우렁차게 외쳐지고 난 후 불현듯 크나큰 절규로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처음의 쓸쓸한 걸음걸이가 재현되면서 아쉬움으로 마무리된다.

### 3악장 | Elegy “슬픈 노래”

작곡가의 젊은 친구가 그릇된 종교적 신념(무수혈 치료: 無輸血治療, Bloodless Surgery)으로 의학치료를 거부하여 죽게 된 사건을 그린 악장이다. 의학치료를 거부하는 친구의 모습이 서주에서 안타까움으로 그려지며 곧이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마치 귀신의 기괴한 모습처럼 을씨년스럽게 묘사된다.



[3악장 솔로 피아노에 의한 장송행진곡 주제]

솔로 피아노에서 시작되는 느린 재즈 풍의 이 장송행진곡은 바르톡의 현과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Music for Strings, Percussion and Celesta, Sz. 106, BB 114)을 닮았다. 곡은 점차 쓰라린 통곡에 도달하게 되고 코다에서 이르면 생의 마지막을 향해 다가서는 친구의 모습과 이를 보며 눈물을 머금으며 안타까워하는 작곡가의 모습이 피아노 솔로의 워킹 베이스로 가슴 저미게 표현된다. 애써 웃음 짓는 피콜로와 클라리넷의 채색이 서글프기도 하다.

### 4악장 | Dog Heaven “개들의 천국”

두 아이의 엄마가 훈육의 방법 중 하나로 아이들의 애완건을 빼앗아버린 사건을 그린 악장인데 사실 이는 작곡가가 지어낸 이야기이다. 애완건을 잃은 아이들의 슬픔이나 엄마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곡의 초점이 맞추어져있지 않고 사후세계에서 행복하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개들의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자유분방한 즉흥연주가 신나는데 곡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진 전통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있는 점이 흥미롭다.



[4악장 제 1주제]

쇼팽의 강아지왈츠에서 동기가 착안되었으며 저음의 워킹베이스, 화성 및 금관악기와 타악기의 재즈 풍 활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 일반적인 피아노 협주곡의 화려한 마지막 악장 론도 소나타의 많은 특징을 보이고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4악장 제 2주제]

날렵한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의 활발한 대화는 강아지들의 발 빠른 움직임과 놀이를 묘사하고 관악기의 개 짖는 울음과 아우성이 재즈풍의 시원하고 세련된 화성으로 경쾌한 가운데 곡은 재미있게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Smetana, Selections from 'Má Vlast'

#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발취 연주

앞서 직관과 즉흥에 기초하여 유연한 작곡기법으로 곡을 쓰는 쇤베르크의 경우와는 달리 체코의 국민악파 작곡가 스메타나(Bedřich Smetana, 1824~1884)는 정규 음악 교육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된 작곡가로 고지식하고 다소 융통성이 없게 느껴지리만큼 매우 학구적이다. 스메타나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맥주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전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높은 체코는 미국산 버드와이저의 전신인 부드바르(Budejovický Budvar) 맥주와 필스너(Pilsner Urquell) 등 13개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맥주제조업은 체코에서 부유한 귀족 사업에 속한다. 음악가가 되길 원했던 스메타나는 아들이 이러한 맥주 제조사업을 계승하길 원했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그는 부를 버리고 음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스스로 경제적 자활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프라하로 진출해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듯 어릴 적부터 생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분명했던 스메타나는 1848년, 그의 나이 24세 때 당시 체코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에 대해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혁명 운동이 일어나자 국민의용군에 가담하게 된다. 이후 음악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독립 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주의 국민악파계의 음악가로 알려지게 된다. 그는 즉흥이나 우연적 결과물로서의 창작을 지양하고 명백한 의도 가운데 철저한 계산과 디자인을 통해 작곡하였다. 1874년 음악가로서의 전성기를 달리던 50세의 그는 매독으로 인해 오래된 질병이던 환청(幻聽)이 악화되게 되고 지휘자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게 된다. 같은 해 10월에는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어 결국 작곡에만 전념하게 되는데 이때 작곡된 곡이 바로 6악장 구성의 교향시 '나의 조국(Má Vlast)'이다. 이 작품 이후로 그는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음악계를 떠나게 된다. 안타깝게도 1883년 말부터는 정신착란 증세까지 나타났으며, 1884년 프라하의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 1악장 | Vyšehrad 비셰흐라트

체코의 전설적인 음유시인 루미르(Lumír)의 하프 소리로 곡은 시작된다. 두 대의 하프가 네 개음으로 된 모티브(Bb-Eb-D-Bb)를 연주하는데 이 음형은 비셰흐라트를 상징하며 이후 전곡에 걸쳐 반복된다. 특히 2악장 블타바와 6악장 블라니크의 종결부에서 반복될 때 감격적인 클라이맥스를 이루는데 이 오래된 옛성은 체코 민족을 대변하는 것으로 빼앗긴 조국의 자유와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의미한다.



[1악장 두 대의 하프에 의한 비셰흐라트 주제]

스메타나는 이 곡에 대해 “조국의 영광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면, 시인은 조국의 여름에 보이는 찬란

## Bedřich Smetana,

# Selections from 'Má Vlast'

Má vlast (My Homeland) is a collection of six symphonic poems composed by Bedřich Smetana between 1874 and 1879. While often performed as a unified work, each piece was originally conceived as an individual composition. The complete premiere took place in Prague on November 5, 1882, under the direction of Adolf Čech, who also conducted two of the individual premieres.

Smetana merges Franz Liszt's symphonic poem form with the late nineteenth-century ideals of nationalistic music in Má vlast. Each poem captures facets of Bohemia's countryside, history, or legends.

The first movement, Vyšehrad (The High Castle), completed in November 1874, portrays the Vyšehrad castle and its history. It begins with the harp of mythical Lumír, introducing motifs that reappear throughout the cycle. The piece recounts the castle's story, from triumphant heights to its collapse, ending with a quiet depiction of the River Vltava.

The second movement, Vltava (The River Vltava), composed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1874, depicts the course of the Vltava River, incorporating tone painting to evoke its sounds. It features Smetana's famous tune and describes the river's journey from its sources to Prague and beyond. The main theme

한 광경, 전쟁, 마지막으로 조국의 몰락을 노래한다"라고 설명한다. 주제가 점차 증폭되어 찬란하게 외쳐진 후 전쟁의 행진곡이 빠른 박자로 성의 모티브를 반복한다. 장려한 클라이맥스 이후 갑자기 성의 붕괴를 묘사하는 패시지로 급격하게 추락한 뒤 음악은 조용해진다. 도입부 비셰흐라트 하프 멜로디가 재현되고,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의 아름다움이 회상된다. 성 아래로 흐르는 블타바 강을 묘사하며 조용하게 끝난다.

2악장 | Vltava 블타바

보헤미아의 아름답고 거대한 블타바 강을 음악을 통해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스메타나는 "이 곡은 작은 두 샘에서 발원하여 이 차가운 강과 따뜻한 강의 두 줄기가 하나로 모여 숲과 관목들을 지나 농부의 결혼식, 밤에 달빛을 받으며 추는 인어들의 원무, 주변에 바위가 있는 가운데 솟은 성과 궁전과 폐허를 지나가는 블타바 강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블타바는 성 요한의 급류에서 소용돌이치다가 프라하를 향해 잔잔히 흘러가며 비셰흐라트 성을 지나 저 멀리 라베강(Labe)과 합류하며 장엄하게 사라진다."라고 설명한다.



[2악장 두 개의 샘을 묘사하는 도입 주제]

두 대의 플루트로 시작된 주제가 합쳐져 우렁차게 퍼지는 유명한 주제는 16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 민요 라 만토바나(La Mantovana)에서 인용된 것이다. 라 만토바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그린 노래로 가사에 담긴 메시지 때문에 당시 체코 민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현 이스라엘의 국가 하티크바(Hatikvah) 역시 이 멜로디를 차용하고 있다.



[라 만토바나에서 차용된 라베강의 주제]

5악장 | Tabor 타보르

체코의 종교 개혁가 '후스(Jan Huss, 1372~1415)'가 벌인 종교개혁운동에 가담했던 교도들이 국왕과 용감하게 싸웠던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 타보르는 당시 후스파가 건설한 된 보헤미아 남부의 도시의 이름이며 주제는 후스파 찬송가(Hussite Hymn) "신의 전사인 사람들"(Ktož jsú boží bojovníci)의 첫 두 악절을 인용한 것이다.



[5악장 코랄 주제]

6악장 | Blaník 블라니크

'블라니크'라는 산은 후스 교도들이 진지를 구축했던 곳이다. 목동의 피리소리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나면 적군이 공격하는데 타보르의 죽은 기사들은 다시 일어나 조국을 구한다. 비셰흐라트의 주제가 등장하고 타보르에서의 후스파 찬송가 주제가 행진곡으로 울려 퍼지며 마침내 체코가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글: 박희정 (지휘자/작곡가)

is quoted from the 16th Century Italian song "La Mantovana"

The fifth movement, Tabor

Tábor, completed in December 1878, is named after the town founded by the Hussites during the Hussite Wars. The theme is derived from the Hussite hymn, "Ktož jsú boží bojovníci."

The sixth movement, Blaník

Blaník, finished in March 1879, is named for the mountain where a legend says a sleeping army led by St. Wenceslaus awaits to aid the country in times of need. It shares musical motifs with Tábor, forming a cohesive pair within the cycle.

Má vlast is a testament to Smetana's innovative fusion of symphonic elements and nationalistic ideals, offering a vivid musical journey through Bohemian landscapes, history, and legends.





## 심포니송의 프로들



<b>예술감독</b>	함신익			
<b>바이올린</b>	김상균 김민하 문수빈 오하은 정수임 최주은	박진형 김지연 박준하 옥영미 정예린	임누리 김태경 박지윤 이예원 조유리	김동아 김희영 송예지 전지은 조유진
<b>비올라</b>	박하은 장서윤	박서현 장윤정	안예림 정하림	윤소은 조혜민
<b>첼로</b>	김아영 조안나	박여원 홍지희	이혜인 황유정	정혜솔
<b>더블베이스</b>	고부현 이원지	강선률 조민영	박소연	윤영진
<b>플루트</b>	김소희	하종수		
<b>피콜로</b>	김지원			
<b>오보에</b>	김지영	박수진	이혜빈	
<b>잉글리시 호른</b>	박수진			

<b>클라리넷</b>	문승주	김민찬	김현구	
<b>바순</b>	김윤지	심충현		
<b>콘트라바순</b>	김지혜			
<b>호른</b>	후이리	안지환	이석재	최정은
<b>트럼펫</b>	이진규	이혜진	차우림	
<b>트럼본</b>	김성수	황인환		
<b>베이스 트럼본</b>	Ryan Broughton			
<b>튜바</b>	김인수			
<b>팀파니</b>	Sheng-Wen Lee			
<b>퍼커션</b>	김슬민	손혁진	엄휘원	Sheng-Wen Lee
<b>하프</b>	추민경			
<b>신디사이저</b>	한지민			
<b>크리에이티브 팀</b>	김동아 한지민	신현숙 Ryan Broughton	장명희	최윤정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 SHOSTAKOVICH & MENDELSSOHN

쇼스타코비치와  
멘델스존

쇼스타코비치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Shostakovich | Violin Concerto  
No. 1 in a minor

멘델스존 | 교향곡 제3번 '스코틀랜드'  
Mendelssohn | Symphony No. 3  
in a minor 'Scottish'

03.2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지휘 함신의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에메 LOTTE  
CONCERT HALL

yes24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SEBONG FST TSE DSK K2Webtech GOLFZON 화광교역(주) 코스모스약기 서대문구 한국문악예술위원회

01.11

THU 7:30PM



영웅적 신년음악회

Heroic New Year Concert

-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 지휘 함신익, 바이올린 김응수



02.22

THU 7:30PM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

Schoenfield & Smetana

- 쇠펠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발레
- 지휘 함신익, 피아노 김태형

03.21

THU 7:30PM



쇼스타코비치와 멘델스존

Shostakovich & Mendelssohn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 함신익, 바이올린 한수진

04.19

FRI 7: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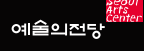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의 보석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제7번

The Jewels of Classic Era: Mendelssohn and Beethoven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 지휘 함신익, 바이올린 김상균

05.21

TUE 7:30PM



베토벤과 말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 말러 교향곡 제5번 올림다단조 중 '아다지에도'
- 베토벤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 말러 교향곡 제4번 사장조
- 지휘 함신익, 소프라노 양귀비

# 2024 마스터즈 시리즈에

SYMPHONY S.O.N.G 2024 MASTERS SERIES

함신익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 당신을 초대합니다

06.27

THU 7:30PM



브람스 페스티벌

Double the Brahms

- 브람스 이중 협주곡 가단조
- 브람스 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 지휘 루이스 로라셉, 바이올린 김다미, 첼로 주연선

09.26

THU 7:30PM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Remembering Dvořák

- 드칭 웬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 드보르자크 '전설'
- 지휘 함신익, 바이올린 송지원

10.21

MON 7:30PM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ff Special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단조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 지휘 함신익, 피아노 유영욱

11.28

THU 7:30PM



슈베르트와 브람스

Schubert and Brahms

- 슈베르트 교향곡 제4번 다단조, '비극적'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단조
- 지휘 함신익, 피아노 박종해

12.27

FRI 7: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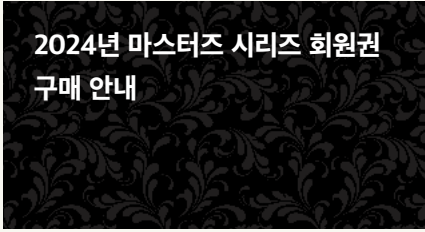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
- 지휘 함신익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베이스 정인호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과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R석 8회	<del>800,000원</del> ▶	720,000원
2월 29일까지 구매 시	10%	S석 8회	<del>560,000원</del> ▶	504,000원
		A석 8회	<del>400,000원</del> ▶	360,000원

##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6 (논현동 EG빌딩)  
B1 심포니송



##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input type="checkbox"/> R석 <input type="checkbox"/> S석 <input type="checkbox"/> A석	<input type="checkbox"/> 현장수령(추천) <b>수령 방식</b> <input type="checkbox"/> 자택 또는 회사 주소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 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b>*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b>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 명 \_\_\_\_\_

연 락 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저희에게는 큰 후원이 됩니다.

**‘Melodia’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_____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이 힘이다!

##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EG  
www.egcorp.co.kr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 -FA부분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모듈장비, AMR(Autonomous Mobile Robot),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Linear System, Probe, Laser

## -BIO부분

보툴리눔 독소제제 'PROTOXIN' 을 이용한 치료제, 해독제, 바이오베타 제조/생산/판매.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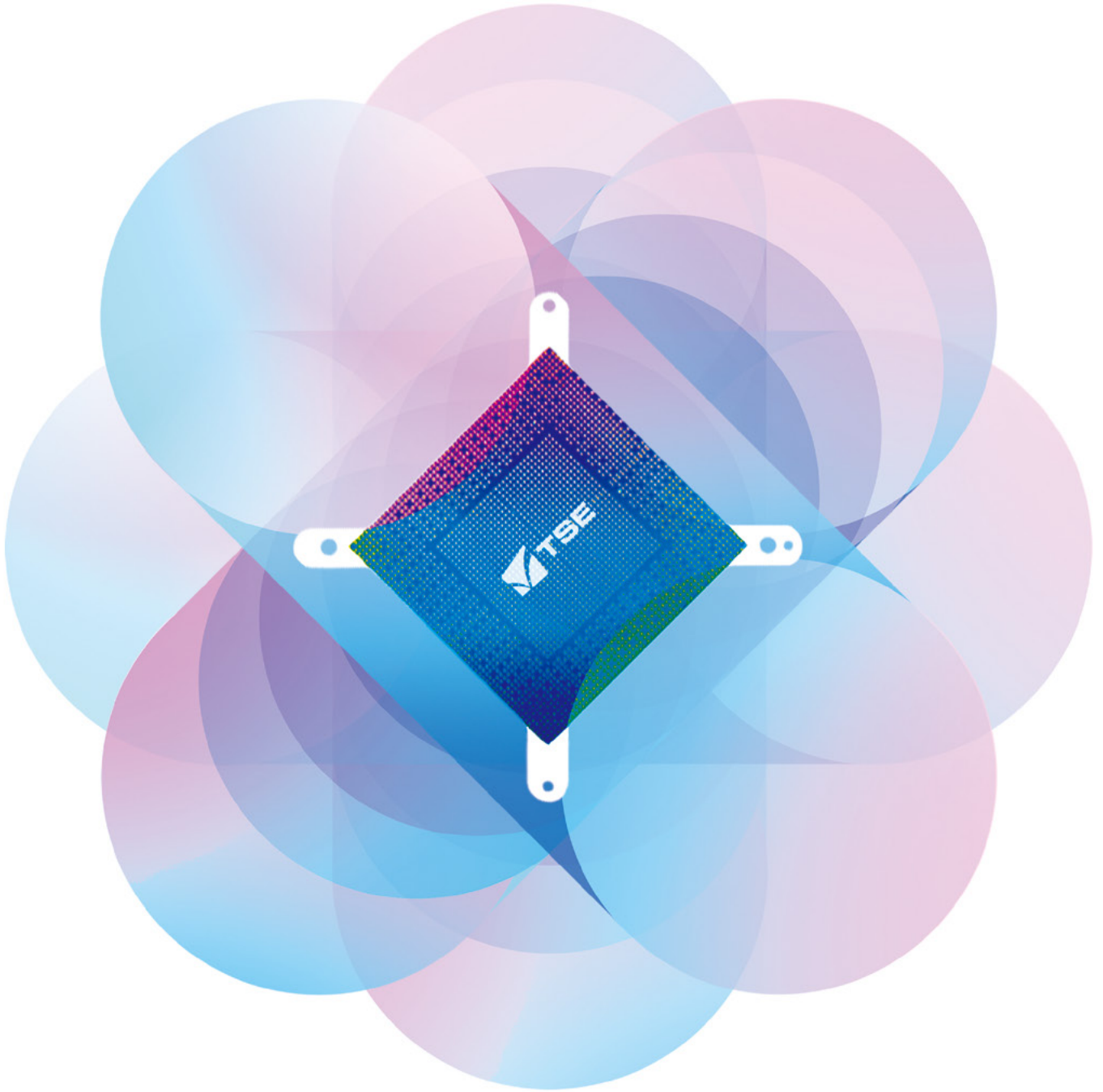
전문약품과 일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 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http://www.tse21.com)  
TSE Co., Ltd.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GOLFZON NEWDIN GROUP





# leuto™

레우토

##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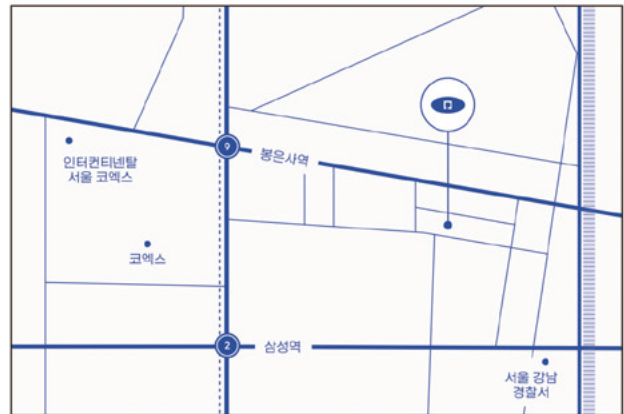
## OFFLINE SHOP



###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http://www.underpressure.co.kr)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품발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 정기후원

(자동이체로 더 편리해진 후원)

심포니 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4 시즌 후원 회원 모집



목표회원: 100명

## 후원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마스터즈 시리즈 티켓 할인 (10%) \*1회 한

# 매달 활동사항과 공연정보 제공

# 오픈 리허설 참관특혜

# 연 2회 살롱 콘서트 초청

# 예술감독과의 연례 대화